

# 이재용 회장, '창업' 아닌 '수성'의 길로 나아가라

박재역의 맛있는 우리말

## 그녀

문인이나 국어학자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지칭(지키는 말)으로 '그녀'가 있다. 워낙 이견이 많아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교열 일을 하는 필자는 글에서 '그녀'가 대명사 자격으로 많이 쓰이면 '대체'의 절차를 거친다.

소설가 김동인이 처음 사용했다는 '그녀'라는 표현을 염상섭은 일본어 '기노조(かのじょ, 彼女)'의 한자 발음대로 '피녀'라고 썼다고 한다. '그녀'를 기피하는 것도 이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남녀 공존으로 쓰이는 '그분'이라는 존칭이 가능하나 '그녀'는 '그녀분'으로 쓰이지도 않고 굳이 쓰다 해도 얼마나 어색한가.

자기 어머니를 '그녀'로 지칭할 수 없듯이 업적이 탁월해 사람들이 웬만큼 잘 아는 여성이라면 '그녀'로 지칭하지 않는 것이 옳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다. 이름과 함께 직위를 사용하거나, 직위가 없다면 '여사'나 '선생'이라는 지칭을 사용하면 될 것이다. 타계하신 분이 라면 '그녀'보다는 '차라리' 이름을 노출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일 것이다.

한국어문고어연구원 원장



스카이 View

한원석  
경제산업부장

이재용 부회장이 27일 삼성전자 회장에 취임했다. 부회장에 오른 지 10년 만이다. 하지만 이 회장은 이날 회장 승진에도 별다른 취임식을 열지 않고, '부당 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의 1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공판 도중 휴식시간에 취재진에게 "어깨가 무겁다"며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사랑받고, 신뢰 받는 기업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이병철 창업주는 삼성그룹을 창업해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키워 냈고, 고(故) 이건희 회장은 아버지로 부터 물려받은 회사를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할아버지와 그야말로 '청출어람(靑出於藍)'을 실천한 아버지의 뒤를 잇는 입장인 이 회장이 느끼는 책임감은 감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일 것이다.

이러한 책임의 무게는 이 회장이 25일 이견희 회장의 2주기를 맞아 전·현직 삼성 경영진 300여 명 앞에서 밝힌 소회를 정리한 글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회장은 해당 글에서 "이건희 회장의 치열했던 삶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진다. 선대의 업적과 유산을 계승·발전시켜야 하는 게 제 소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타깝게도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새로운 분야를 선도하지 못하고, 기존 시장에서는 추격자들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동안 세계 1위나 그에 준하는 위치를 차지하던 반도체·모바일·가전 등이 중국 등 후발주자의 거센 도전에 직면한 상태다.

이 회장은 이러한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돌이켜 보면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면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앞서 준비하고 실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지금은 더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글로벌 대기업의 반열에 오른 삼성의 위치에서 이재용 신인 회장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창업'보다 '수성'일 것이다. 당태종(唐太宗) 이세민은 방현령·위징 등 명재상의 보필을 받으며 '정관(貞觀)의 치(治)'라는 훌륭한 정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태종이 어느 날 대신들에게 "창업(創業)과 수성(守成)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어려운가"라고 묻자, 위징은 "예로부터 임금의 자리는 간난 속에서 어렵게 얻어 안일 속에서 쉽게 잃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창업보다는 수성이 더 어렵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회장의 조부인 이병철 창업주도 자서전에서 "사업을 일으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미 이룩해 놓은 사업을 지켜 간다는 것은 그 이상 어렵다"고 적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당태종의 예에서 보듯이 인재가 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1 삼성 신년하례식에서 고 이건희(오른쪽) 회장과 이재용(왼쪽) 회장의 모습. 뉴스스

장 중요하다. 소설을 원작으로 모 방송사에서 방영돼 2000년대 높은 인기를 누렸던 '상도(商道)'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거상인 가포(稼圃) 임삼욱이 있다. 어록을 보면 그는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며 "사람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이윤이다. 신용은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의식했는지 이 회장도 "창업 이래 가장 중시한 가치가 인재와 기술"이라며 "성별과 국적을 불문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인재를 모셔 오고 양성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미래 기술에 우리의 생존이 달려 있다"며 "최고의 기술은 훌륭한 인재들이 만들어 낸다"고 다시 한 번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젊은 시절 사석에서 '저는 앞으로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500만 명이 넘는다. 삼성전자의 2021년 연 매출은 280조 원, 영업이익은 51조 원에 달한다. 올해 대한민국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은 607조 원이다. 한 회사의 매출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 한국의 정부예산과 맞먹는 것이다.

이 회장은 "오늘의 삼성을 넘어 진정한 초일류 기업, 국민과 세계인이 사랑하는 기업을 꼭 같이 만들자. 제가 그 앞에 서겠다"고 밝혔다. 이 신인 회장이 세계 초일류 기업인 삼성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만든다면 이병철의 손자, 이건희의 아들이 아니라 이재용이라는 사람 자체가 훗날 역사의 거목으로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다. 이 회장 본인을 위해서도, 삼성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런 날이 오길 손꼽아 기대한다.

wshan@skyedaily.com

## 데일리 Talk

# '이재명 살리기'와 '윤석열 죽이기'만 남은 야당



장혜원  
정치사회부 기자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강력히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16일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강조한 건 '협치'였다. 경제·안보 위기에 여야가 극한대치의 정쟁을 멈추고 '통합'을 위한 발걸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의침은 취임 5개월 만에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을 위한 첫 시정연설에 전면 불참으로 대응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제야당의 시정연설 거부다. 민주당 지도부는 시정연설에 앞서 열린 대통령과 국회의장간5

부 요인 원내 정당 지도부 사전회담에도 불참하며 여소야대 국면의 극단적 대립 국면을 다시금 재연했다.

이들은 로텐더 홀에서 피켓 등을 들고 규탄 시위를 벌이고 윤 대통령을 보이콧했다. 639조 원에 달하는 새해 예산안 처리를 불모로 삼고 여론전에 돌입한 것이다. 민주당이 연말까지 예산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으면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정연설은 헌법 제81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이자 국회법 제84조의 절차에 따른 것이다. 통상 1년에 한 번 대통령이 나라 살림 구상을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 끝에 내놓으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이를 경청하고 꼼꼼히 따져 묻고 심의 및 의결해야 한다.

시정연설 보이콧은 사실상 제야당 기본 책무를 방기한 행위다. 보이콧의 명분도 공색하기 그지없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책은 없고 정쟁만 남았다"는 비판이 가득한 윤 정부 첫 국감을 파행 국면으로 몰아갔

던 이유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 관련 검찰 수사 및 종북 주사와 발언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를 시정연설 참여 조건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당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 자금' 8억여 원 수수 혐의와 관련해 민주당사 내부 민주당구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차원임을 강조하기까지 했다. 검찰이 적법한 절차로 진행된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정질문을 위한 '면책특권'을 당 대표 수호를 위한 '수사방해'에 남용한 꼴이다.

이들은 검사 출신 윤 대통령을 저격하며 '검찰공화국'을 다시금 들먹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도 용산 대통령실로 찾아가 정부에 대한 항의·규탄 회견을 하면서 종북감사가 예정돼 있던 삼임위에 줄줄이 파행 국면을 빚어냈다. 당 대표 측근 살리기에 169석의 입법폭주라는 비판의 중심에 선 제야당이 국정과 민생을 불모로 잡은 모양새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대장동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제안한 것은 두 번째로 지난해 11월 대선국면에 이어 두 번째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막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한다.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선 특검법이 수용되지 않으면 장외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최근 광화문 광장에서는 취임 후 5개월 된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키겠다는 대규모 촛불집회까지 열리고 있다. 야당의 여당에 대한 폭격로 국감뿐만 아니라 나라가 두 쪽으로 갈렸고 협치와 통합은 사라졌다. 고환율·갈라져 위기 등 안팎의 경제파고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는 야당의 국정 발목짜기는 지적도 나온다. 야권 인사들은 '기'는 '민생 걱정'으로 시작하며 말문을 열어 '승-선-결'은 '윤석열 퇴진'을 외친다. 야권에는 다만 '윤석열 죽이기'와 '이재명 살리기' 구호만 남았다. 이들이 '민심 갈라치기'를 하는 동안 민생은 바다부터 갈라지고 있다. hjyang@skyedaily.com

**SkyeDaily**

사장·발행인 조민호 편집인·주필 조정진  
인쇄인 채인 임채형 편집국장·박선옥

(주)스카이데일리  
창간일자 2011년 9월 2일  
등록일자 2011년 7월 18일  
등록번호 서울아01703(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가50131(일간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41 세신빌딩 9층  
TEL 02-522-6595-6 Fax 02-522-6597  
홈페이지 www.skyedaily.com  
구독료 월 15,000원/연 180,000원

Everywhere Green Life, H<sub>2</sub> KOGAS  
KOGAS가 만들어가는 Fill · Feel · Care

IGU WGC2022  
28th WORLD GAS CONFERENCE  
DAEGU, KOREA 23-27 MAY

**KOGAS가 FILL 합니다**

당신과 함께할 H<sub>2</sub>U 를 가득 채웁니다.

KOGAS가 수소경제와 에너지 대전환의 선두주자가 되어  
우리 일상을 깨끗한 에너지로 가득 채워드립니다.

**한국가스공사**  
KOREA GAS CORPORATION

H<sub>2</sub>U 는 수소사업에 대한 도전과 열정을 담은 한국가스공사의 새로운 브랜드입니다.